

특집 - 익산 '백제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년

미륵사지 석탑 정비 무왕도시 면모 갖춰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을 포함한 백제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5주년을 맞아 '무왕의 도시'로 도약한다. 백제유적지구는 지난 2015년 7월, 유적 간 연속성과 원진성, 진정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

세계가 인정했던 익산은 백제 30대 무왕의 탄생과 성장, 왕위계승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백제 왕도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1,400년 고도이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는 위용과 무왕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무왕의 도시로 들어가 본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이뤄낸 변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백제유적지구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무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우선 미륵사지 내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이 지난해 보수정비가 완료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주도로 해체조사와 보수정비가 추진된 지 20년 만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석탑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해 6층 모습으로 석탑 조립을 완료했다. 20년간 약 2,10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용된 부재는 총 1,627개로 무게가 약 1,830톤에 이른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석조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추정 복원이 아닌 기존 부재를 81%까지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복원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을 포함해 백제 왕도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이 올해 초 미륵사지 내에 개관돼 이목을 끌었다. 국내에서 13번째로 건립된 국립익산박물관은 '보이지 않는 박물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박물관 형식으로 미륵사지와 석탑의 모습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특히 세계유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동탑 전경.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변화

미륵사지 석탑, 추정 복원 아닌 기존 부재 81%까지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 등 확보

국립익산박물관도 올해 초 미륵사지 내 개관 '이목 집중' '보이지 않는 박물관' 이 특징

무왕의 도시 도약

익산시, 500만 관광객 유치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를 기반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를 기반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를 기반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미륵사지의 문화경관을 보전하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최초의 박물관으로 세계적인 박물관들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다.

박물관에는 국보와 보물 11점을 비롯해 모두 3천여점이 전시돼 백제왕도 익산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설 전시실은 익산백제실과 미륵사지실, 역사문화실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고 생생 대왕릉의 목관 등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도 다수 전시돼 있다.

관광도시 도약, '백제유적지구 무왕 도시로 거듭나다'

익산시는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를 기반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5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를 기반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센터는 백제유적 종합안내관과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 전망대, 교육장, 주민참여공간, 가상체험관과 함께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유적 간 연계 환승시설 등이 들어선다.

설계공모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돼 추진 중인 미륵

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국립익산박물관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한다. 현재 전통문화체험관과 관광안내소 등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주차장과 화장, 녹지공원 등은 올해 안에 완공된다.

이러 지난 2008년 건립된 왕궁리유적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백제왕궁 역사관과 가상체험관을 조성하고 있다. 국비를 포함해 1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까지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AR과 VR, 홀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관이 들어선다.

이 밖에도 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백제유적지구와 핵심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유적 정비와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미륵사지 건축에 대한 고증 연구와 금단지 기반 정비, 쌍릉 대왕릉 목관 제작과 봉안 등을 진행한다.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백제왕궁 보수정비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백제유적지구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관광인프라는 '무왕의 도시'로 도약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백제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백제유적지구는 국제성과 탁월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며 "유적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전경

타악퍼포먼스 그룹 아쿠 타-다' 콘서트, 김제서

31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7월 31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전통 타악을 바탕으로 세대를 초월한 타악 '타-다'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대북과 모듬북, 난타북, 그리고 전통타악기와 서양타악기 등 동서양의 장르를 넘나드는 타악 연주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보여주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타악 공연팀인 아쿠 타-다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곁들여 타악 퍼포먼스로 선보여 관객들에게 뜨거운 신명과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심어진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7월 2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njc.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태 기자

알면 쓸모 있는 '잡학 지식'

신간도서 - '이토록 재미난 집콕 독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문학적 지식 저자 일상의 이야기와 접붙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잡학 지식도 슬기로운 집콕 생활에 도움을 준다.

26년 차 교사이자 '고전적이지 않은 고전 읽기'를 통해 활발한 고전 독서법을 선보인 독자가 박윤호는 인문학이나 고전이 따분하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재미나고 즐거운지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독서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들만의 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독서는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인문학적



행위'라고 말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저자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의 일상과 엮어 풀어낸다. '불량직업 잔혹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장례식장에서 청소부의 휴식 공간을 본 자기 경험담에서 시작해 역사 속 '불량직업'과 오늘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직업을 함께 돌아본다.

한국의 유교화 과정'에 대한 글에서는 제사상에 밥 대신 맛밤을 올리지는 아내의 말에 설득당했던 일화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놓으며 유교의 도입과 정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간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일상의 이야기와 접붙이는 저자의 글쓰기는 인문학과 고전이 품은 가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256쪽, 갈매나무, 1만4000원. /뉴시스

클나무들의 '세계여행 9박10일'

부안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안예술회관서 27일 무료 공연 세계여행 체험 음악회로 각 나라 유명한 클래식 곡들 선보여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7월 27일 오후 7시 30분에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계여행 9박10일'을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공연으로 개최한다.

세계여행 9박10일 공연은 클래식을 통하여 세계여행을 체험하는 음악회로 각 나라의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와 그 곡에 대한 해설을 통해 관객들이 클래식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공연을 준비하였으며 각 나라의 배경에 맞는 영상과 함께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유수영)는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급난세의 지휘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급난세 지휘자를 초청하여 음악



회를 가졌으며, 매년 40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 최고의 오케스트라이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 입장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민으로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공연에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시 발열체크, 자가 문진표작성, 좌석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자가 문진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좀 더 여유 있게 도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진성 기자